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절박한 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주의 주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왕이 그야."

問 如何是趙州主 師云 大是

조주(趙州)는 원래 지역 이름이다. 조주 스님이 한 곳에서 40년을 넘게 살다보니 지명이 곧 스님의 호(號)가 된 것이다. 학승이 조주 스님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은 것은 조주 스님의 '본성'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조주라는 지역의 주인은 나라의 대왕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비유로써 대답한 것이다. 조주 땅의 주인이 대왕이듯 조주 스님의 몸을 이끌고 다니는 주인은 마음, 곧 심왕(心王)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에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지만, 일신의 주인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므로 능히 왕이라는 호칭을 써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법왕(法王)이라고 불렀다.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지만 진리(法)의 왕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자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마음이 일신의 주인이라고 본 조주 스님의 정신이다.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지만 마음이 딱바르지 않으면 몸도 딱바르지 않게 된다. 이 몸의 주인은 영(靈)이나 신(神)이 아니고 마음(心)이다.

학승이 물었다.

"절박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원컨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줌 누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問 急切處請師道 師云 屎是小事 須是老僧自去始得

무엇이 가장 절박한 일일까? 조주 스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닥쳐왔을 때가 바로 절박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나라에 지진이나 수해같은 큰 변고가 닥치면 국가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재해 복구를 거들기도 한다. 그때, 가장 시급한 일은 재해 복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일은 자기의 본신(本身)을 회복하는 일이다. <법화경>에서 장자의 아들이 자기가 훌륭한 집안의 자손임을 잊어버리고 걸인으로 돌아다니듯이 일체 중생은 자기가 부처의 아들(佛子)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부처의 삶은 평화롭다. 그러나 중생의 삶은 고통스럽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한 찰나 깨달으면 된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오로지 본인이 해야 한다.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단 1회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설법을 듣는다면 곧 깨어나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선불교에서 지향하여가는 깨달음의 길이다.

학승이 물었다. "누가 부처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은 선상(禪床)에서 내려와 그 학승을 위로 쳐다보고 또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이 사나이는 이렇게 키가 장대하다. 세 토막으로 절 단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런데 굳이 위라느니 아래라느니 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問 如何是佛向上人 師下禪床 上下觀瞻相云 者漢如許長大 截作三爿也得 問什麼向上向下

조주 선사를 구순피선(口脣皮禪), 즉 다른 선사들과 달리 임으로 진실을 가리키는 선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 <조주록>을 보면 조주 선사 역시 다른 선사들처럼 살아있는 법문을 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문답도 그런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주 선사의 가리킴이다.

부처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 부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이 질문한 것인데, 조주 선사는 일부러 선상에 내려와 질문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또 아래로 내려다보는 연출을 해 보이면서, 너는 세 토막으로 잘라도 좋을 만큼 큰 사내인데, 더 뒷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못느니면서 질책성 가르침을 준 것이다.

부처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으니까 그런 쓸데 없는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너는 부처야. 부처가 최고 높은 자리다. 너는 내면은 부처이고 표면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으로 죽어. 부처라는 이름도 거추장스러워. 사람, 그 이상 높은 단계를 찾지 말라"라는 가르침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⑤



출가하는 일은 어렵다 속가에 머물러 사는 일도 어렵다 <테라가타>

필 떨어 눈이 내린다. 눈이 쌓여만 간다. 누군가는 이 눈을 맞으면서, 눈을 쓸어내고 있다. 이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더 내려가면 길은 빙판길이 되리라. 눈길 위에서 영녕 방아를 짊고, 낙상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리라. 눈길을 가는 일은 어렵다. 하기는 눈길이 굳어 아니더라도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도(道)나 법(法)은 모두 길이다. 영어로는 'way'다. 주어진 길이든지, 자기 스스로 만들면서 가는 길이든지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벅 꾸벅 부지런히 가야하고,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니까. 이 간단하게 보이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길을 가다가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된다. 길가에 핀 꽃들에 마음을 빼앗겨 길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어떨 때는 길 자체에 대해서, 길을 만든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혹은 함께 길을 가는 길벗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 그 화를 내는 일이 정당한 일이지, 즉 길에 부합하는 일인지 아니든지 무관하게 화를 낼 수도 있다.

길을 통째로 들어내서 쳐 박아 버리고도 싶다. 그 길 안에서 부당하고도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날수록 그런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갈 길 자체가 없어진다. 그 부당하고도 부조리한 길을 제외하고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더 좋은 길이 없을까, 언제나 꿈을 꾸다. 하지만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는 길은 없다. 나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고, 나 스스로를 내다버려야 한다. 결코 출가자가 가는 길이라 해서 더 쉬운 것도 아니고, 속가에 사는 몸이 걷는 길이라 해서 더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길은 그 길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 길은 이 길대로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그 어느 길도 우리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젠타 비구의 노래가 좋다. "출가하는 일은 어렵다. 속가에 머물러 사는 일도 어렵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차라리 돌아갈 제3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길을 피하고 서는 나의 길이 없다. 눈이 오면, 바람이 불면 꾸벅 꾸벅 갈 수밖에 없다. 길을 가면서

길을 만들고, 길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르침·도·법 역시 '길'이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심오한 길 이 있다. 심오할 가르침이 있다는 것만이 우리를 이끄는 불빛이 된다. 젠타 비구가 "하지만 가르침은 심오하다"라고 할 때, 그 뒤안에는 "그 어떤 길도 다 어렵긴 마찬가지다. 다행인 것은 그 행진에 대한 가르침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리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보폭은 어느 만큼 벌려야 하는지 잘 기록해 놓은 길라잡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눈길 끝에 깜박깜박 보이는 초가집 호롱불처럼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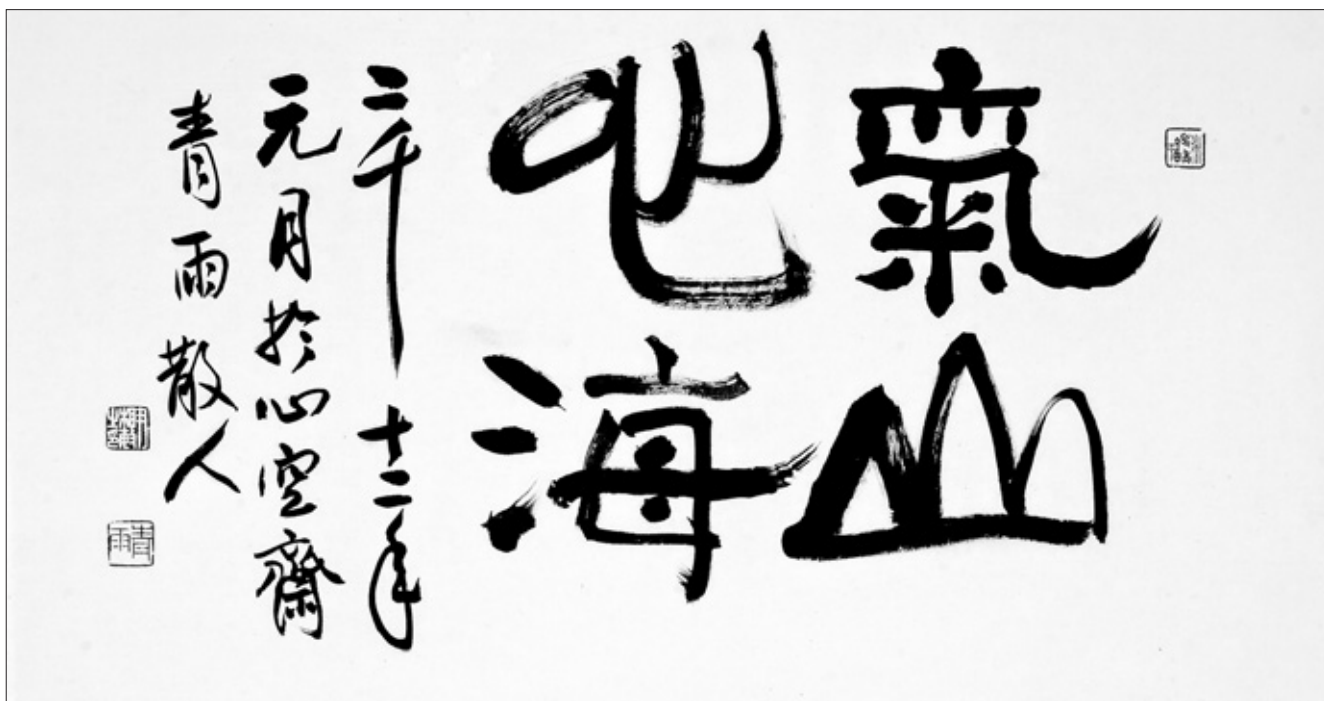
를 비쳐준다. 그 가르침을, 그 길라잡이를 들고 가야 한다. 길을 가면서, 길라잡이가 나올 때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길라잡이를 펼쳐야 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약도를 보고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면 영생하고 멸망치 않는다고 말이다. 우리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길벗들 중에도, 혹시 교만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눈길 같은 한 세상, 살아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오한 가르침, 즉 심오한 경전이 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운상민의 서화산책 기산심해



서화산책 이번호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산 같이 바다 같이

氣山心海(기산심해) 기세는 산같이 마음은 바다같이

氣: 기운 기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지와,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2년 3월 6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작법부- 불교예술평대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평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2년 3월 9일 금요일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2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2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